

## ▶ 의생활

## 현대패션에 나타난 '프라브(PRAVS)' 조형적 특성

## -키치적 요소와의 조형적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현 명 관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강사)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인간의 미의식은 그 시대의 사회적·자연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복식 또한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의 다양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고도로 산업화되고 체계화된 대중 소비문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자기 반성적 경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모든 예술분야는 더더욱 새롭고 실험적이며 전위적인 스타일로 변화되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키치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써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연결시키는 접속사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패션에도 투영되어 다양한 패션 형태에도 키치의 특성이 표현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서민적 코드들이 패션에 접목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층들의 문화와 생활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악취향의 패션을 즐기고 싸구려를 자처하며 자신들의 취향을 뽐내기 위해 공개하는 하위의 청년문화인 '차브(CHAV)'가 스포츠와 연예사업의 시장 확대로 저소득층 출신의 유명인사가 많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음악과 영상, 스포츠에서 활동을 펼치며 '차브(CHAV)'의 우상이 되었다. 이러한 차브족은 명품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품질과 디자인에서 큰 차이도 없으면서 가격만 비싼 명품을 사느니 싸고 좋은 것을 사서 쓰려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제품의 싼 가격을 최우선시 하였다. 이러한 차브의 하위 개념으로써 가격보다는 희소성에 주목하는 프라브(PRAVS)족은 부가된 가치의 자부심을 깨달은 사람들(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을 뜻하는 신조어로 저급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브'문화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합리적 소비와 자신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실속파를 가리키는 프라브족은 영국에서 비롯된 조어로 고소득층의 유명 연예인들이 저렴한 패션 물품을 구매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이 프라브족의 한 예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다른 사람보다 낮은 가격에 유사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느끼는 승리감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며 빈티지 패션이 유행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풍조는 패션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프라브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저렴한 가격대인 악세서리나 패션잡화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이며, 합리적 소비와 자신만의 가치를 중시하고 기존 명품 브랜드에 대한 거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천박함과 고고함의 혼합, 젊음의 표출,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극도의 감성적 시대 반영을 통해 부를 상징으로 세련미를 강조한 부르조아 세력들에 대한 하위문화의 저항과 반발의 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성 세대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반항의 도구로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스타일을 강조하여 현란하고 천박한 거짓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키치적 특성들과 유사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프라브(PRAVS)의 조형적 특성을 현대 대중문화·소비문화 시대의 흐름을 형성하는 척도를 제공하기도 하는 키치적 요소의 조형적 특성과 비교해 봄으로써 프라브(CHAV)의 조형적 특성을 유희성(Amusement), 혼성·모방성(Composition), 희소성(Rarity)으로 코드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